김성환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선로 내년 1월 착공"

〈기후부 장관〉

광주 광산구·변전소 후보지 점검
타 지역 변압기 사용 없이 신규 발주
이달까지 동서울 변환소 주민 협의



11일 전남광주 서구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변전소 후보지를 방문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기후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주민 반대로 지연 중인 동서울 변환소 증설은 이달까지 협의 후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오전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선로 경과지인 광주 광산구와 변전소 후보지(광주 서구)를 현장 점검했다.

이날 첫 일정으로 광산구 전력공급선로 경과지를 찾은 김성환 장관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건설 계획 및 공사 여건을 보고받았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선로는 지난 8월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 체결 및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현재 설계 용역이 발주 중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수직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설에 돌입해 적기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어 서구 변전소 후보지를 방문해 호남의 풍부한 발전력을 산단으로 끌어올 핵심 관문인 변전소 건설 계획을 점검했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대구 등 타 지역에 들어설 변전소의 변압기를 가져다 쓰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 로 했다. 김 장관은 광주 서구 변전소 후보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했던 일이긴 하나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존 변압기를 옮겨 쓰는 방식이 아닌 신규 발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타지역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팹 규모 확대에 대비한 추가 변전소 건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동서울변환소, 이달 중 합의 총력… 여의치 않으면 특별법 적용"

주민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동서울 변환소 증설은 주민 협의에 나서돼 법적 절차를 통한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대략 일주일 정도 더 논의하면 합리적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달 중에는 주민들이 양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최선을 다하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력망특별법에 따른 절차 개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력망특별법은 지자체가 한전의 사업실시계획 승인 요청 후 60일 내 회신이 없으면 요청이 수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동서울변환소는 동해안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사업의 종착지로 2027년부터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할 핵심 시설이다.

김 장관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정부는 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내어주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복댐 증축이 지역 상생으로 이어지고,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상과 지원 대책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기대, 아태지역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성 공유

'한-ILO 아시아·태평양 포럼' 개막
디지털 전환·노동시장 변화 대응
글로벌 TVET 협력 네트워크 강화

2026 한-ILO 파트너십 프로그램(I-KORP)의 일환인 '한-ILO 아시아·태평양 포럼'이 11일(현지시간) 개막했다.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와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 주최하는 이 포럼은 이날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ILO가 함께 추진해 온 2024~2026년 한-ILO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디지털 전환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개막식에는 유길상 한기대 총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ILO, ITCILO(ILO 국제훈련센터) 및 국내 직업훈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의 정부·직업훈련기관 관계자 100여 명도 사흘간의 일정에 합류한다.

참석자들은 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몽골·태국 등 5개국에서 추진한 한-ILO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한다. 공공전환, 청년고용, 디지털·녹색 역량 강화 및 사회적 대화 등 주요 협력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는 일정이다. 또 이를 토대로 2027~2030년 차기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의 직업훈련 경험을 각국의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아울러 ILO와 가나·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정책 및 협력 수요도 소개한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에서 축적한 교육협력 경험을 아프리카로 확장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다룬다.

올해 개교 35주년을 맞은 한기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직업훈련교사 양성부터 디지털 교육훈련, 국제 공동교육과정 개발에 이르는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한다. 글로벌 TVET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기대와 ILO 국제훈련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를 위한 TVET 석사과정'도 소개된다. 양 기관은 교육 전문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석사과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TVET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길상 총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녹색 전환이라는 거대한 격변기 속에서 직업교육훈련(TVET)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신념처럼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사람은 미래를 바꾸는 주체'인 만큼, 모든 사람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 더 나은 일자리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10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디지털·AI 항만, 물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

부산항 디지털·스마트항만 전환 속도

부산항만공사-삼성SDS '맞손'
부산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부산항만공사가 삼성SDS와 '디지털·AI 항만, 물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IT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부산항의 디지털·AI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1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그간 양측은 상호 간 물류 시스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기술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공사는 밝혔다.

지난 10일 맺은 협약에 따라 ▲글로벌 물류 분야 디지털 연계 ▲스마트항만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업무 정기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의 항만 운영 전문성과 삼성SDS의 글로벌 물류·인공지능(AI)·디지털트윈·클라우드 및 IT서비스 역량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부산항의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한다. 또 해운·항만·물류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에너지공단-동서발전,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

O&M 시장 국산 표준 모델 정립해
실전형 전문 인재 적기 공급 박차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동서발전이 해상풍력 발전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좌우할 유지보수(Q&M)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한다.

양사는 지난 10일 울산 동서발전 본사에서 '해상풍력 유지보수(O&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거나 체계적인 인프라가 부족했던 국내 해상풍력 O&M 시장에 국산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실전형 전문 인재를 적기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울산 중구 동서발전 본사에서 개최된 해상풍력 유지보수(O&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양 기관은 에너지공단이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구축 중인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구축 중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전문 교육과 국내 해상풍력 유지보수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 477억원(국비 216억원, 지방비 261억원)이 투입되는 이 센터는 연면적 5776㎡ 규모로 ▲3차원 대형 훈련 수조 ▲헬리콥터 해상 추락 탈출 시뮬레이터(HUET) ▲풍력발전기 주요 설비 점검 훈련 장비 ▲무인잠수정(ROV) 등 실제 해상 환경과 흡사한 특수 훈련 및 실증 장비들을 갖추게 된다.

에너지공단은 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동서발전은 발전설비 운영 노하우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모델을 정립하고 현장 실습 환경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센터 준공에 맞춰 세부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시범 운영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푸드위크코리아' 1400만弗 수출계약 성사

농식품부, 현장계약 47건 성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푸드위크코리아 2026'에서 14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4~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푸드위크코리아에서 수출상담 2937건 및 현장계약 47건의 성과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 계약액은 1400만 달러로 1년 전 행사 때보다 18% 증가했다.

올해 행사에는 46개국 식품기업 약 1000곳과 바이어 252곳이 참가했다. 전시부스 1622개가 운영됐으며 관람객 수도 지난해 5만5000명에서 올해 5만6000명으로 늘었다. 신선 과채류와 전통주의 현장 계약액은 약 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15% 증가했다. 전체 현장 계약액의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행사장에서는 전통주를 소개하는 'K-주막' 라이브 쇼케이스와 신선 과채류·전통주 시식·시음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미국의 대형 급식·유통 관계자들은 불고기 양념소스 등 한국 소스류와 식자재의 현지 활용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국내 기업들과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 완제품 판매뿐 아니라 현지 급식·외식업체의 메뉴에 한국 식재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판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현장에서는 '고숙도 딸기 수출 시범사업'을 위한 생산자-수출업체-싱가포르 바이어 간 3자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협약에 참여한 농가 대표는 "이번 시범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한국산 딸기가 세계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